

배우 천우희가 '앵커'가 된 이유

영화 '앵커'서 9시 뉴스 앵커 '세라' 연기 첫 전문직 역할 맡아 "도전하고 싶었다"



영화 '앵커'(감독 정지연)에서 배우 천우희(35)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전에 보여줬던 것과 보여준 적이 없던 것. 천우희가 보여줬던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내보이지 않으려는 어떤 감정을 결국 드러내 보이는 연기일 것이다.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건 프로페셔널한 전문 직업인의 모습이다. 아마도 천우희가 '앵커'를 택한 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앵커' 개봉을 앞두고 천우희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그는 "이 시나리오가 앵커라는 직업적 특성과 장르적 특성을 모두 잘 표현했다고 봐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천우희는 '앵커'에서 방송국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메인 앵커 '세라'를 연기했다. 세라는 방송국 입사 9년 간 메인 앵커가 되기 위해 달린 인물. 아나운서 경력만으로는 앵커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에 기자로 전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노력 끝에 9시 뉴스 앵커 자리를 꿰차고 능력을 인정받은 세라는 어느 날 제보 전화를 한 통 받는다. 누군가 자신과 딸을 죽이려고 한다는 여성

의 다급한 목소리. 장난전화로 여기고 끊었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이 전화에 세라는 직접 취재에 나선다.

천우희는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앵커라는 직업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학생 역할을 자주 맡았고, 학생 캐릭터가 아닐 때는 극적인 성격이 강해서 현실엔 없을 법한 인물을 주로 연기했다. 철두철미한 프로페셔널을 해본 적은 없었다. "제 연기 경력도 꽤 쌓였잖아요. 연기로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작품 속 캐릭터가 앵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출연을 결정하고 그는 진짜 앵커가 되기로 했다. 천우희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6개월 간 밟는 코스를 20일 간 속성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매일 같이 3-4시간을 아나운서 특유의 자세와 표정까지 공부하면서 따라했다. 그렇게 천우희는 9시 뉴스 메인 앵커 세라가 됐다. '앵커'엔 천우희의 아나운서 심이 수차례 나오는데, 그의 앵커 연기는 실

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는 "이전 작품에선 땀으로 주로 나왔다면 이번엔 화장도 하고 웃도 앵커처럼 입었다. 머리도 단발로 잘랐다"며 "더 성숙한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앵커'에서 천우희의 연기가 아나운서처럼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었다. 세라는 제보 전화 취재 건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엄마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별거 중인 남편과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할 의사까지 만나게 되자 견딜 수 없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천우희는 "앵커로서 세라의 정제된 모습과 반대로 세라 내면의 극적인 면을 융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세라의 감정은 매우 극적이었어요. 극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고조됩니다. 그 수위를 계속해서 조절해가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보여주는 세라의 심리가 장르적인 재미에도 부합해야 했죠. 정확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까."

천우희가 전에 하지 않았던 전문직 캐릭터를 맡은 건 맞지만, 다르게 보면 이번에도 천우희는 이전 몇몇 작품에서 보여준 '센 캐릭터'를 또 한 번 보여준 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센 캐릭터'엔 양면적인 요소가 있어 자주 끌린다고 했다.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역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을 해내고나면 만족감과 쾌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여성 캐릭터가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고, 그걸 제가 또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있어요."

영화 '앵커'를 통해 어떤 면에서 성장한 것 같느냐는 물음에 천우희는 "이 작품은 촬영 시간에 압박이 있었던 작품"이라며 "그걸 이겨내고 잘 마무리했다는 게 성장한 부분"이라고 했다. "제 연기를 보는 건 제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내 과거를 보는 일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괴워하고 있다는 건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보다는 무언가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2NE1, 美 코첼라서 6년4개월 만에 완전체



"씨엘, 멤버들 초대"

그들 '투애니원(2NE1)' 멤버 4명이 6년4개월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2NE1 멤버 씨엘(CL)·박봄·산다라박·공민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에서 열린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2022(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2022)'에서 감작 등장해 대표곡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불렀다. 씨엘이 미국 기반의 아시안 레이블 '88라이징'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척(CHUCK)' 등을 불렀고 이후 박봄·산다라박·공민지가 함께 올랐다. 사전에 전혀 예고돼 있지 않았던 깜짝 무대였다.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국을 비롯 세계 음악 팬들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번 완전체 무대는 씨엘의 주도로 성사됐다. 씨엘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씨엘이 올해 코첼라 무대에 초청을 받았다. 2NE1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멤버들을 무대에 초대했다"고 전했다.

2009년 YG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2NE1은 개성 강한 그룹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이 돈트 케어'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그룹 반열에 올랐다. 월드투어를 두 번이나 돌았으며

2014년 앨범 '크러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봄이 마약 등에 연루되며 활동이 뜸해졌고, 결국 2016년 11월 해체를 결정했다. 2017년 마지막곡인 '굿바이(GOOD BYE)' 음원을 내놓았다.

4인 완전체 마지막 무대는 2015년 12월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2015 넷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 이후 처음이다. 이듬해인 2016년 4월 공민지가 팀을 먼저 탈퇴했기 때문이다.

현재 YG에 소속된 가수는 한명도 없다. 지난해 말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산다라박과 씨엘이 함께 등장하고 지난달 네 멤버가 함께 있는 사진이 씨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재결합설이 나왔다.

과거 YG 간판 2NE1의 이번 코첼라 무대는 현 YG 간판 '블랙핑크'의 코첼라 무대와 묘한 연결고리를 갖게 돼 K팝 팬의 관심을 끈다. 2019년 블랙핑크가 코첼라에서 무대를 선보인 뒤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번 코첼라 무대를 시작으로 2NE1의 재결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 나온다. 실제 씨엘이 솔로로서도 미국 활동 기반을 다져놓은 게 있어 현지 공략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히 이번 코첼라 무대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무대 마지막에 관객을 등지고 네 멤버가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는 것이 음악팬들의 반응이다. 팬들은 "원조 걸크러시가 돌아왔다"고 반응했다.

세븐틴 첫 영어 싱글 '달링', 아이튠즈 송 차트 34개 지역 1위



그룹 '세븐틴'(SVT)이 첫 영어 싱글 '달링 (Darl+ing)'으로 글로벌 음원 차트를 강타했다.

글로벌 음원 차트 강타

16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이 전날 오후 1시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달링'은 해외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총 34개 국가/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총 46개 국가/지역 톱10을 기록했다.

'달링'은 또한 일본 음원 사이트 라인 뮤직, mu-mo 등에서도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 빌보드와 롤링스톤, 영국 NME 등 해외 유력 음악 전문 매체들이 이번 싱글과 함께 애플(Apple)과의 협업에 주목했다.

'달링'은 세븐틴이 오는 5월에 발매될 정규 4집의 선공개 곡이다. 전 세계 캐럿(팬덤명)에게 들려 주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특별한 너와 내가 만나 우리로서 완전한 하나가 되자'는 의미다.

세븐틴은 이번 싱글을 발매하면서 애플과 협업한 프로젝트 '투데이 앳 애플(Today at Apple)' 리믹스 세션을 선보였다.

아이콘, 2년 6개월만에 일본 콘서트 개최...다음달 컴백

그룹 아이콘(iKON)이 약 2년 6개월 만에 일본 콘서트를 개최한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콘은 7월 2-3일 효고현 코베 월드기념관에서 일본 투어 '아이콘 재팬 투어 2022(iKON JAPAN TOUR 2022)'를 개최한다. 7월 9-10일에는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현지 팬들을 만난다.

이들은 '아이콘 재팬 투어 2019(iKON JAPAN TOUR 2019)'를 기점으로 일본 투어

누적 관객수 100만 명 돌파하고, 전 좌석 매진을 달성했다.

지난해 3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왜왜(Why Why Why)'는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의 월간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아이콘은 내달 3일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어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투어에 앞서 6월 25-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 가능하다.

개그맨 박수홍 명의 8개 사망보험 10억원...수혜자는 '친형 가족' 주장

친형과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정 다툼 중'

개그맨 박수홍(52)과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으로 법정 다툼 중인 친형 가족이 박수홍 명의 8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유튜브 이진호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수홍이 형과 형수 등 친형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유튜브에 따르면, 박수홍은 형과 법적 다툼을 위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일부 보험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령하게 돼 있다. 이 유튜브는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1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친형 가족에게 돌아간다고도 주장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중언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에 이 유튜브가 주장한 내용이 맥락적으로는 대체로 맞다고 확인했다. 노 변호사는 "보험 가입 과정이 대부분 전화로 이뤄진다. 박수홍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예'했다. 가입한 보험이 사망 보험이 아닌 연금이나 실손 보험인 줄 알았더라"고 전했다.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에 보험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이미 언급됐다. 박수홍의 친형은 작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홍이가 여자친구(현 아내)와 가족의 단념이 불발된 후 2020년 4월 보험을 갖고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홍이가)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 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 다 '내가 사인 한 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 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듣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뭐라 했다'고 돌아왔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걸 납입도 끝났다"



고 주장했다.

이번에 이 유튜브의 주장으로 화두가 된 건,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친형 가족에게 돌아가는 보험금 10억원이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질병 사망 시 5억1500만원, 상해 사망 6억1500만원이다. 총액은 11억3000만원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수령 가능 최대 총액은 6억1500만원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6개는 박수홍이 미혼일 때 가입한 것이라 법정 상속인인 그의 친족으로 돼 있다. 문제는 수혜자가 친형 가족의 회사로 돼 있는 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2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노 변호사는 "8개 중 4개는 해지를 했다. 일부 보험은 계약자가 친형 회사라 친형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힘들다. 이와 관련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 같은 해 116억원으로 늘렸다.

뉴시스